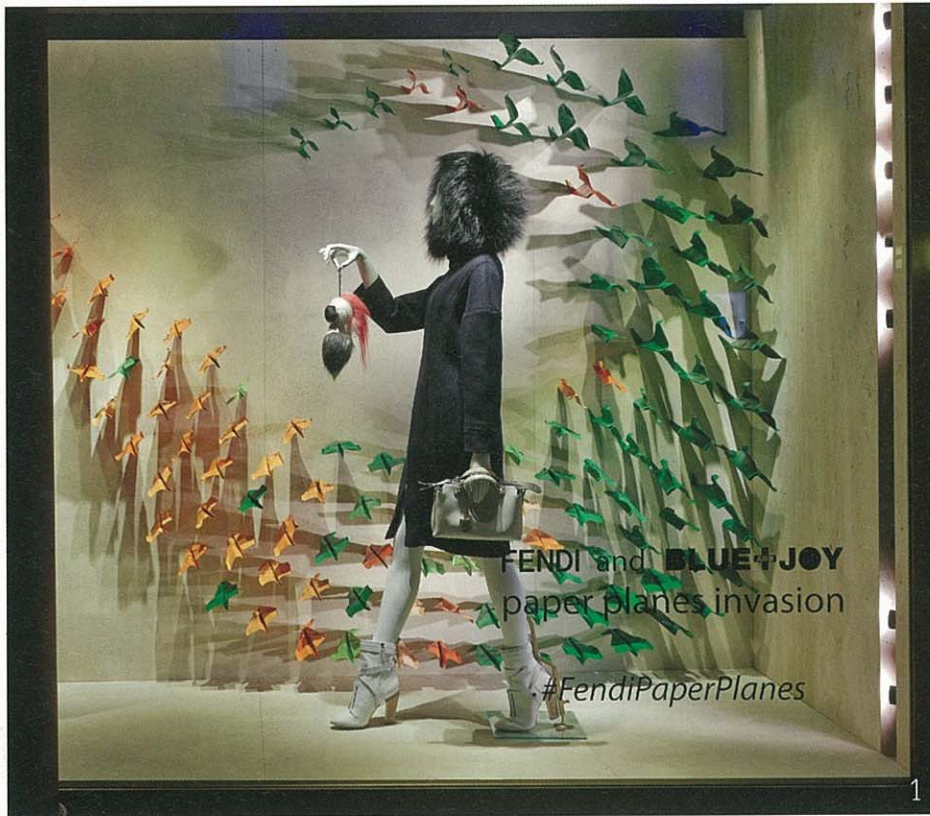


FASHION INFO



1 2

WINDOW ART PROJECT 펜디는 베를린에서 블루 & 조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아티스트 듀오와 함께 전 세계 주요 부티크의 쇼윈도를 새롭게 꾸몄다. 이들은 지난 9월부터 펜디의 쇼윈도에 생동감을 불어넣는 작업에 착수, 총 27개 부티크에 4000개 이상의 종이비행기 모형이 소용돌이치며 하늘을 나는 장면을 연출해 눈길을 사로잡는다. 아이보리색부터 오렌지색, 파란색까지 다채로운 색상의 종이비행기를 그려테이션하듯 공중에 배치했다. 저마다 색상과 크기가 다른 모형들이 금방이라도 날아갈 것처럼 경쾌하고 산뜻한 느낌을 전한다.

표면의 자연스러운 구김까지 정교하게 표현한 종이비행기 장식은 가볍고 연약해 보이지만 사실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이다. 마치 종이를 다루듯 알루미늄 판을 자르고 접는 섬세한 제작 과정이 펜디 장인들의 작업을 연상시킨다.

이 특별한 윈도 디스플레이는 홍콩에서 시작해 패션 위크 기간에 밀라노, 파리, 뉴욕, 런던 같은 주요 도시를 장식하며 로마와 뮌헨, 프라하, 도쿄, 타이베이, 베이징, 서울 등에서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지난 8월에 새롭게 문을 연 홍콩 랜드마크의 펜디 부티크에서는 블루 & 조이가 이곳 쇼윈도만을 위해 맞춤 제작한 설치미술 작품을 공개하기도 했다.

Fly High, Fendi

전통과 실험 정신, 창조 정신의 가치를 실현하는 펜디가 새로운 아트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블루 & 조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아티스트 듀오와 함께 전 세계 주요 부티크의 쇼윈도를 꾸미는 것이다.



1, 2 전 세계 27개 펜디 부티크에서 선보이는 특별한 윈도 디스플레이. 하늘을 나는 듯한 색색의 종이비행기가 눈길을 끈다.
3 종이를 접어 만든 비행기처럼 알루미늄을 구부리고 여러가지 색을 칠했다.

BLUE & JOY 미디어 아티스트 듀오 파비오 라 파우치와 다니엘레 시갈로트는 2005년부터 함께 활동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전통적인 유화부터 단추, 캡슐, 동전, 사탕 등 일상적인 사물을 활용한 모자이크까지, 소재와 기법을 선택하는 데 있어 경계가 없고 자유로운 것이 특징이다.

이번 펜디 윈도 프로젝트에서 선보인, 종이를 접듯이 알루미늄 판을 가공하는 것은 블루 & 조이의 대표적인 기술이다. 대형 종이비행기가 조각 작품처럼 가만히 멈춰 있는 모습은 역동적인 동시에 정적인 느낌을 전한다. 이처럼 모순되고 대립되는 요소의 공존은 블루 & 조이가 주목하는 주제기도 하다. 최근에는 마이애미나 중국 등 세계 여러 곳에서 전시회를 열고 있으며, 이번 윈도 아트 프로젝트를 통해 패션 브랜드와 현대미술의 성공적인 협업 사례를 기록했다.

글 이영우 기자, 구태은(프리랜서) | 자료 제공 펜디(2056-9023)

Luxury KR, October 2014

Fly High, Fendi

Fendi, a fashion house realizing the values of experimental spirit and creativity presented a new art project. It displayed windows in main boutiques worldwide with an artist duo called Blue and Joy.

WINDOW ART PROJECT

Fendi renewed its windows in main boutiques worldwide with a Berlin based art duo, Blue and Joy. From last September they created more than 4,000 paper airplanes flying in the windows of 27 Fendi boutiques. They put cream, orange to blue colors of paper planes in the air to achieve gradation effect. Objects of different colors and sizes present fresh and cheerful mood, as if they can fly away in any moment.

The light and fragile looking paper planes with natural crease on the surface are actually made of aluminum. The production process of cutting and folding aluminum panel like paper reminds the craftsmanship of Fendi.

Starting from Hong Kong, this special window display will be presented in main cities including Milan, Paris, New York and London in fashion weeks and also in Rome, Munich, Prague, Tokyo, Taipei, Beijing and Seoul. In last August, Blue and Joy presented the installation works exclusively made for the windows for new Landmark Fendi boutique in Hong Kong.

Captions

1, 2 Special window display to be presented in 27 Fendi boutiques worldwide. Colorful paper planes in the air catch visitor's attention.

3 Aluminum panel is folded and painted in diverse colors to simulate paper planes.

Blue and Joy is a media art duo created by Fabio La Fauci and Daniele Sigalot in 2005. They are renowned for boundless mix of techniques and materials from traditional oil painting to mosaic, buttons, capsules, coins and candy.

The aluminum folding process used in the window project for Fendi is one of their representative techniques. They suggest dynamic and static mood at the same time through the huge paper planes stay still like work of sculpture. This co-existence of contradictory and opposing elements is the theme Blue and Joy is interested in. Recently the duo is having exhibitions around the world including Miami and China, and this window art project is recorded as a successful collaboration of fashion world and modern art.